



## 양적 성장위주산업 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담 : 한인규 박사  
임병규 전무  
정리 : 권동원 기자

「월간양계」 창간 19주년을 맞이하여 초대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월간양계」와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한인규 박사와 현재 편집위원장인 임병규전무가 10월19일 서울대학교 영양사료 연구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한박사님께서서는 지금은 후배양성에 전념하고 있지만 19년전 당시 국내 축산업 태동기에 양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선진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겠다는 일념에서 기술전문지인 「월간양계」의 초대편집위원장으로 창간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계란 1개를 팔아 시내버스 3번을 탈 수 있었던 그시절이 그리다하면서 대담에 들어갔다.

**임병규**—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업도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입개방압력이 거세어져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권 국가들과 무역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옥수수, 대두박, 채종박 등 사료원료가 간접수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직교역이 되면 교역량도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도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대륙의 넓은 땅을 이용하여 필요한 식량자원을 우리가 직접 경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료산업은 축산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순탄한 발전을 해왔으며 배합사료는 10년전 연간 2백 60만 생산수준에서 작년에는 9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축산업이 양적으로는 팽창을 계속해 왔지만 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구조적 모순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외부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적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축산업에 속한 사료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료산업성장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인규**—축산업 전체 구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료산업 역시 전환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물량위주 성장을 지속하여 연간 1천만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사료산업 장기전망을 할 때 1천1백만까지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그 이후는 완만한 곡선으로 1천5백만까지는 성장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변화시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닥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은 확실하여 2000년대에는 1천5백만규모가 될 거라 전망합니다. 여기에 축산물을 수출까지 한다면 지금보다 2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사료산업은 성장위주 산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민주화, 자유화 물결을 타고 시대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수입개방압력을 받으며 시장이 열리어가고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야 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닥쳐 본의아니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임병규**—최근 사료업계에서 규모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사료업 허가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료업 허가제를 풀어야 한다고 있습니다만 사료업의 신규허가는 억제하는 방향이 현명



▲한인규 박사



규모간의 갈등보다  
일반사료공장과  
축협사료공장과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자가 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농장은 많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가배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료를 자가배합해서 사용하면 15%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자가배합을 하려면 한달에 1천이상은 생산해야 하는데 1천톤을 넘겨 사료를 쓰는 농장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사료공장에 관세 등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배합을 해야 한다면 농장에서 완전배합을 하기보다는 사료공장보다 원료 구매에 유리한 것은 농장에서 구매하고 나머지는 일반사료공장에서 혼합사료 형태로 가져다 쓰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들어 파는 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이 허가제인데 만들어 쓰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사료공장 허가제 유지되어야**

**한인규**—저 역시 사료공장 허가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원료사료 배정, 복잡한 도입수속절차, 배합기, 분쇄기를 갖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료업 허가가 자율화되어 누구나 사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시설이 과잉 확장되어 가동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민족자본 낭비만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허가제가 자율화 된다면 그 뒤에는 아직 사료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농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허가제가 자율화되어 자가배합을 하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축종별로 시범적 운영을 해보면서 몇년 기간을 두고 시험적 단계를 거쳐 시행착

오늘 적게 해야 합니다.

중소사료업체에서 사료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받으려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좀더 일찍 대책을 세워 대항했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리며 나가야 합니다.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단합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바람직하겠죠 또한 중소기업 규모별공장은 더욱 노력해서 양축가들의 불만을 없애야 합니다. 좋은 사료가 나오지 않으면 사료공장을 불신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는 일반사료공장과 축협 사료공장간의 갈등이 규모간 갈등 이상의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축협사료가 24%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사료가 양축가에게 매력을 보이기 시작하여 사료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축협이 얼마전 시장점유 목표를 상향조정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단위 축협은 91년까지 허가없이도 사료공장을 세울수 있어 일반사료공장과의 갈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있는 규모간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오해와 불신을 없애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방법을 모



▲ 임병규 전무

“ 사료의 조성분 검사보다는 식품이라는 차원에서 유해물질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색, 소망스런 방향으로 나갈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료산업은 중소기업 공장과 시군축협사료공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조성분 검사보다는 유해물질 검사로

**임병규**—현재 사료는 조성분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성분등록이 굳이 필요한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성분 개념은 양축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검사제도 실시 초기에는 사료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배합사료 검사결과 10년전 위배율이 7%에서 작년에는 1%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 품질이 나쁜 사료는 양축가가 먼저 그 사료를 기피합니다. 차라리 사료도 식품이라는 차원에서 조성분검사보다는 유해물질검사로 바꾸어야 합니

다.

**한인규**—사료성분검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료가 흔하지 않던 시절 사료공장의 농간에서 양축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료공장에서 성분등록을 안전선까지 낮추어 위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20%짜리 사료를 만들면서 18%로 등록해 놓으니가 위배율이 낮아질 수 밖에요. 이제 는 그만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산란사료 경우 칼슘, 인이나 필수아미노산 1~2가지, 항생물질,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효율적이용면에서

관세제도 개선되어야

**임병규**—원료사료 수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율이 일정치 않아 눈에 보이지 않은 손실이 많습

니다. 사료회사에서는 관세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쌀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높아 더 비싼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축이 먹으면 안된다는 것인지 시중에 유통될까 두려워서인지 보리를 사료에 쓰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양축가를 위해서는 사료회사의 생각을 제도적 모순으로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울때 양축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양축가가 쌀사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혈분을 개발하여 사료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사료자원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국산옥수수도 사료용으로 쓰고 있지만 도입옥수수보다 가격이 3배정도 비쌉니다. 이와같은 국산원료의 비싼가격을 사료회사가 부담하여 결국 양축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자원을 이용할 때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인규** : 국내자원은 필요해서 개발하고 나면 원가가 비싸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도와주어 국내자원개발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내자원 이용의 부담을 양축가

에게 넘기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호산업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조방법으로 사료 생산과정이나 양축가에게 보조하거나 직접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 보조하여 사회자원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하여 값싼 사료를 이용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장시설이나 기계화에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유통에도 개입해야겠죠.

**임병규**—축산정책도 양축가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축산진흥기금도 근본적으로 양축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자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료산업을 위해 축산업이 존재하는듯 합니다. 이제 사료산업도 축산업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의 위치로 환원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중국과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교역의 통로가 열리리라 생각되며 북한과도 무역교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료업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인규**—중국과의 교류는 아직 시가장조라 봅니다. 중국은 규모가 영세하고 도로교통, 통신시설, 전력 등 기간산업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술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업도 수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좋은 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중 사료산업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수 우리 기술로 태국, 자유중국에 사료기술을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국내시장 확장보다는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은 그룹의 차원의 유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사료기술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업종간 갈등도 여기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야와 업종간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서 머문다는 생각보다는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축산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양계**